

“AG 연기 아쉬움 전 종목 석권으로 달랠 것”

김성훈 국대 총감독
광주 양궁월드컵 관련

안산 · 김제덕 등 16명
리커브 · 컴파운드 출전

“2022한저우아시안게임 연기의 아쉬움을 광주에서 열리는 양궁월드컵대회 전 종목 석권으로 달래겠습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2022양궁월드컵’ 개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김성훈 국가대표 총감독은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 걸린 10개의 금메달을 모두 수확하고 싶다”고 속마음을 표현했다.

김 총감독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2022현대양궁월드컵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포부를 밝혔다.

김 총감독은 “그동안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비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제 마음 속 최종목표는 이번 대회에 걸려 있는 메달을 모두 따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대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동안 양궁월드컵 2차대



광주2022현대양궁월드컵 개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김성훈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광주양궁월드컵은 17일부터 2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대에서 38개국, 381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기량을 펼친다.

회가 펼쳐진다. 컴파운드와 리커브로 구분돼 펼쳐지는 경기는 남·여·혼성 단체전과 남녀 개인전 등 총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은 2020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을 비롯

해 최미선·강재영·이기현(이상 여자부), 김우진·김제덕·오진혁·이우석(남자부)이 리커브에 출전한다. 컴파운드는 김윤희·송윤수·소재원·오유

현(여자부), 김종호·양재원·최용희·강동현(남자부)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 총감독은 “컴파운드의 경우 유럽이 강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몸상태도 좋아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메달 획득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커브는 중국이 불참했지만 대만, 인도 등과 경쟁이 예상되고 지난달 터키월드컵에서 남자는 독일과 영국, 스페인, 여자는 호주와 미국이 인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대회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과 일정이 겹쳐 불참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회가 올해 첫 국제대회 참가인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힘든 선발전을 거쳤고 훈련을 했는데 무기한 연기돼 아쉬워 했지만 광주양궁월드컵이 있어 지금은 괜찮다”며 “다른나라에서도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진검승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은 “아시안게임이 연기돼 선수들이 불안해 할 줄 알았는데 광주양궁월드컵을 대비해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어 칭찬해 왔다”며 “이번 대회가 광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궁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뉴시스



“올림픽 메달 따고파”

피겨 유망주 신지아, MBN

여성스포츠탈상 4월 MVP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신지아(14·영동중)가 2022 MBN 여성스포츠탈상 4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신지아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매경마니아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2008년생인 신지아는 지난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206.01점을 받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16년 만이다.

신지아는 “2010년 밴쿠버·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활약한 김연아 선배처럼 올림픽 무대에 서고 싶다. 올림픽에 나가려면 꼭 메달도 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시스

허재-허웅 부자, 데이원자산운용서 한술밥 먹나

허웅 FA 자격... 이적 자유로워져

역대급 시장 MVP 출신만 4명

김선형 · 이정현 · 이승현 · 두경민 등

프로농구 서울 SK가 2021~2022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막을 내린 가운데 역대급 자유계약(FA) 시장이 비시즌 농구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허재-허웅 부자에게 관심이 쏠린다. 고양 오리온을 인수한 데이원자산운용이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을 구단 최고책임자로 낙점한 가운데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 최고 스타로 성장한 장남 허웅(DB)이 FA 시장에 나왔다. 3년 연속 인기상을 받은 허웅은 지난 시즌 기량이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균 16.7점 4.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정규리그 베스트5에 이름을 올리며 인기와 기량 모두 입증했다.

지방 모 구단이 허웅 영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데이원자산운용이 의지를 드러내면 부자가 한술밥을 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KCC를 이끌었던 허 전 감독은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구단과 논의 끝에 허웅을 뽑지 않고 김지후를 지명했다. 부자가 한 팀에 있는 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우수선수(MVP) 출신 선수도 넷이나 된다. 이번 챔피언결정전에서 MVP를 받은 김선형(SK)을 비롯해 이승현(데이원자산운용), 두경민(한국가스공사), 이정현(KCC)이 모두 시장에 나왔다.

김선형은 2012~2013시즌 정규리그에서도 MVP를 수상했고, 이승현은 2015~2016시즌 챔피언결정전 MVP, 두경민은 2017~2018시즌 정규리그 MVP, 이정현은 2018~2019시즌 정규리그 MVP를 받았다.

김선형은 SK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선수다. 하지만 챔피언에 오른 뒤, “SK에서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그래도 솔직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게 맞다”며 “SK에서 잘해준다면 이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는 게 사실이다”고 했다.

FA는 영입에 있어 보상이 존재한다. 전 시즌 전체 보수사월 30위 이내 FA 선수들이 적잖은 경우, 영입한 구단은 보상선수 1명과 전 시즌 보수의 50%나 전 시즌 보수의 200%를 원 소속구단에 줘야 한다.

31~40위는 전 시즌 보수의 100%, 41~50위는 전 시즌 보수의 50%를 보상한다.

단 만 35세 이상은 보상이 없다. 이정현이 여기에 해당 조항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다수 구단이 이정현 영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장에선 2017년 무보상으로 오리온을 떠나 서울 삼성 유니폼을 입은 배테랑 김동욱(KT)의 6억3000만원을 협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봉과 보상으로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바에 무보상 선수에게 더 투자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정현은 운영과 슈팅이 뛰어나고, 노련미가 넘쳐 매력적이다. 플레이오프를 통해 최정상 슈터로 자리매김한 전성현(인삼공사)도 복수 구단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인삼공사와 타 구단들의 ‘베팅 전쟁’이 예상된다.

이밖에 만 35세 이상으로 보상이 필요 없는 박찬희(DB)를 비롯해 정창영(KCC), 박지훈(현대모비스)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FA 대상자 46명은 오는 25일까지 1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28일까지 구단들이 영입의 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복수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하면 선수가 구단을 선택할 수 있고 1개 구단만 제출하면 해당 선수는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 여기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은 원 소속구단과 재협상할 수 있다. /뉴시스



허재(사진 오른쪽), 허웅 부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비디오프랜드 광화문점에서 열린 기정의달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 한여름에도 프로야구 낮 경기

올해에는 한여름에도 프로야구 낮 경기가 펼쳐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2 KBO리그 경기 중 일부 경기 개시 시간이 마케팅 활성화와 지상파 TV 중계 문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더위가 한창인 6~8월에 국내 유일의 실내 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 낮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쓰는 키움 히어로즈는 KBO와 협의해 6~8월 주말 고척에서 열리는 10경기의 경기 개시 시간을 오후 2시로 바꾸기로 했다. 키움은 6월 18~19일 LG 트윈스전, 7월 2~3일 한화 이글스전, 7월 9~10일 NC 다이노스전, 7월 23~24일 삼성 라이온즈전, 8월 20~21일 SSG 랜더스전을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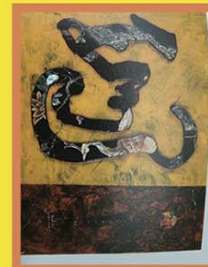
당초 KBO는 선수와 관중을 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여름에는 주말 경기도 저녁에 개최했지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고척스카이돔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KBO는 이달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시작 시간도 지상파 TV 중계를 위해 오후 5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뉴시스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